
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골절

논문제목 장기간 **bisphosphonate**계 약물 복용 후 발생한 대퇴부 골절 경과 및 치료

영문제목 **Clinical outcomes of femoral fractures associated with prolonged bispghosphonate therapy**

발표자 김상범 책임저자 안기찬

저자 안기찬, 박대현, 공규민, 김상범

기관명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정형외과학 교실

서론 :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골흡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골증 치료에 가장 흔히 사용 되는 약제이다. 그러나 이러한 약제의 지속적 사용은 뼈의 전환을 감소시켜 골재형성이나 골절 이후 골 재생 과정에 영향을 끼쳐 오히려 골 강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사용후 발생한 대퇴부 부전 골절 환자 분석을 통해 골절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 :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골흡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골증 치료에 가장 흔히 사용 되는 약제이다. 그러나 이러한 약제의 지속적 사용은 뼈의 전환을 감소시켜 골재형성이나 골절 이후 골 재생 과정에 영향을 끼쳐 오히려 골 강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사용후 발생한 대퇴부 부전 골절 환자 분석을 통해 골절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.

결과 : 모든 환자는 여성이었고 평균 나이는 70.5세 (63~76세)이었다. 평균 약물 복용 기간은 평균 6.3년(5~8.3)이었고 골밀도 검사에서 평균 대퇴부 T-score는 -2.36 (-3.8~-1.4)이었다. 16례 중 12례에서 전구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(75%) 4명에서는 양측성으로 나타났다(33%). 총 8례에 있어 임박 골절이 관찰되었으며 4례에 대해 정을 이용한 예방적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임박 골절이 있던 4례 중 3례에서 평균 11개월(3-28) 만에 완전 골절이 발생하였다. 예방적 고정술을 시행했던 3례에는 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술 후 1년 모두 방사선적 유합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. 수술 부위 통증 소실은 술 후 평균 3.8개월(3-6개월)이었고 자유 보행은 술 후 평균 4.3개월(3-7개월)로 조사되었다. 골절 후 수술을 시행했던 11례에서는 불유합이 2례 감염이 1례 있었고 수술 부위 통증 소실은 술 후 평균 4.7개월(3-9개월)이었고 자유 보행은 술 후 평균 5.2개월(3-9개월)로 조사되었다.

결론 : 장기간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복용 환자에서 전구 증상은 대퇴골 전자하 골절 및 대퇴골 간부 골절 발생의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. 임박 골절의 경우 완전 골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예방적 고정술 시행은 골절 발생 후 수술 보다 나은 임상 경과를 보인다.

acknowledgment :

비스포스포네이트, 대퇴골 부전 골절, 대퇴골 임박 골절